

**[H 갤러리]**

**FEBRUARY COLLECTION**

**2. 1. – 2. 28.**

**PHILIP. HAN.**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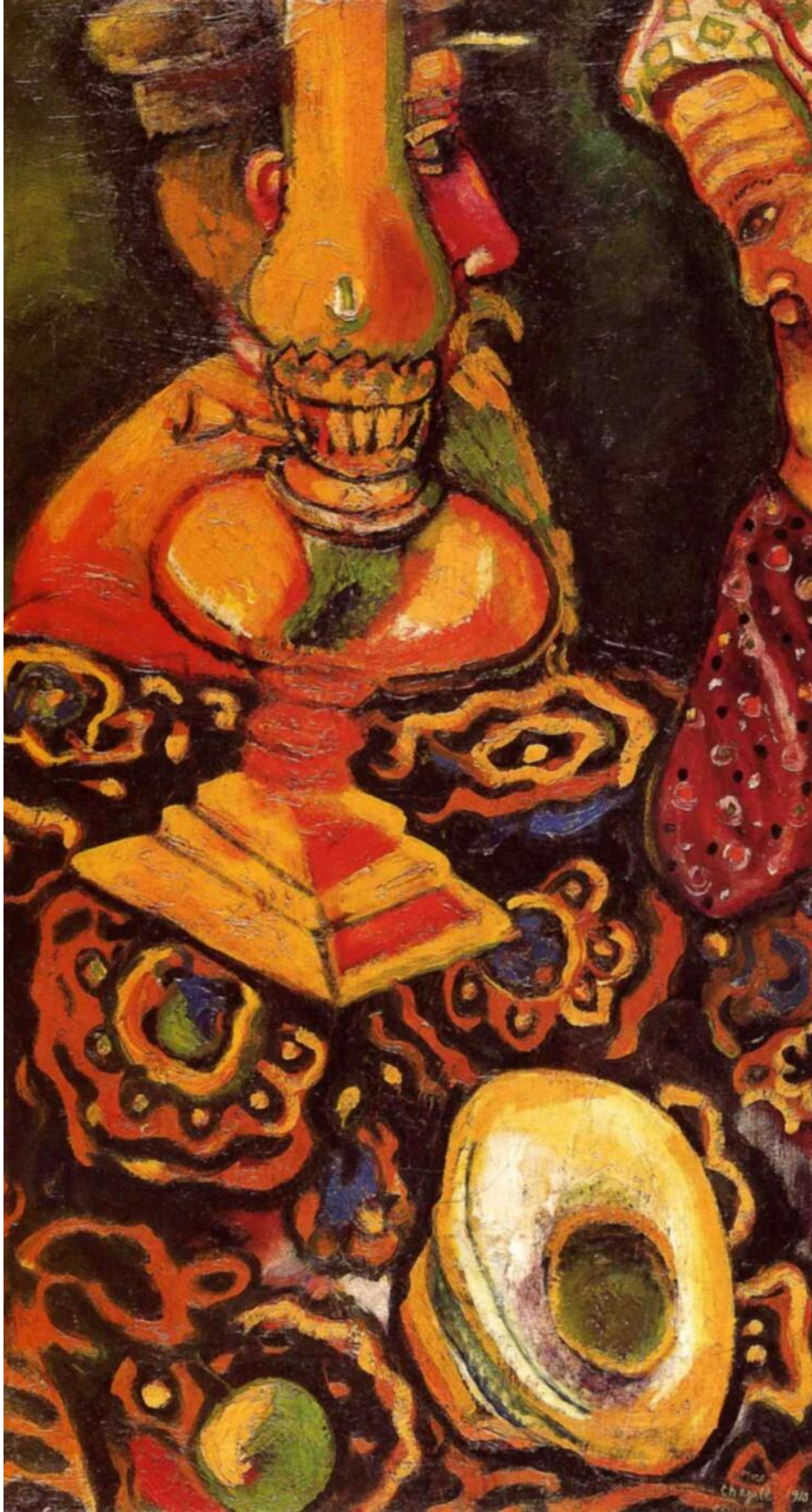
**2. 5. 토. 1910 년 작품 감상**



1910. marchande de pain.



1910. Portrait Of Artist's Sister (Aniu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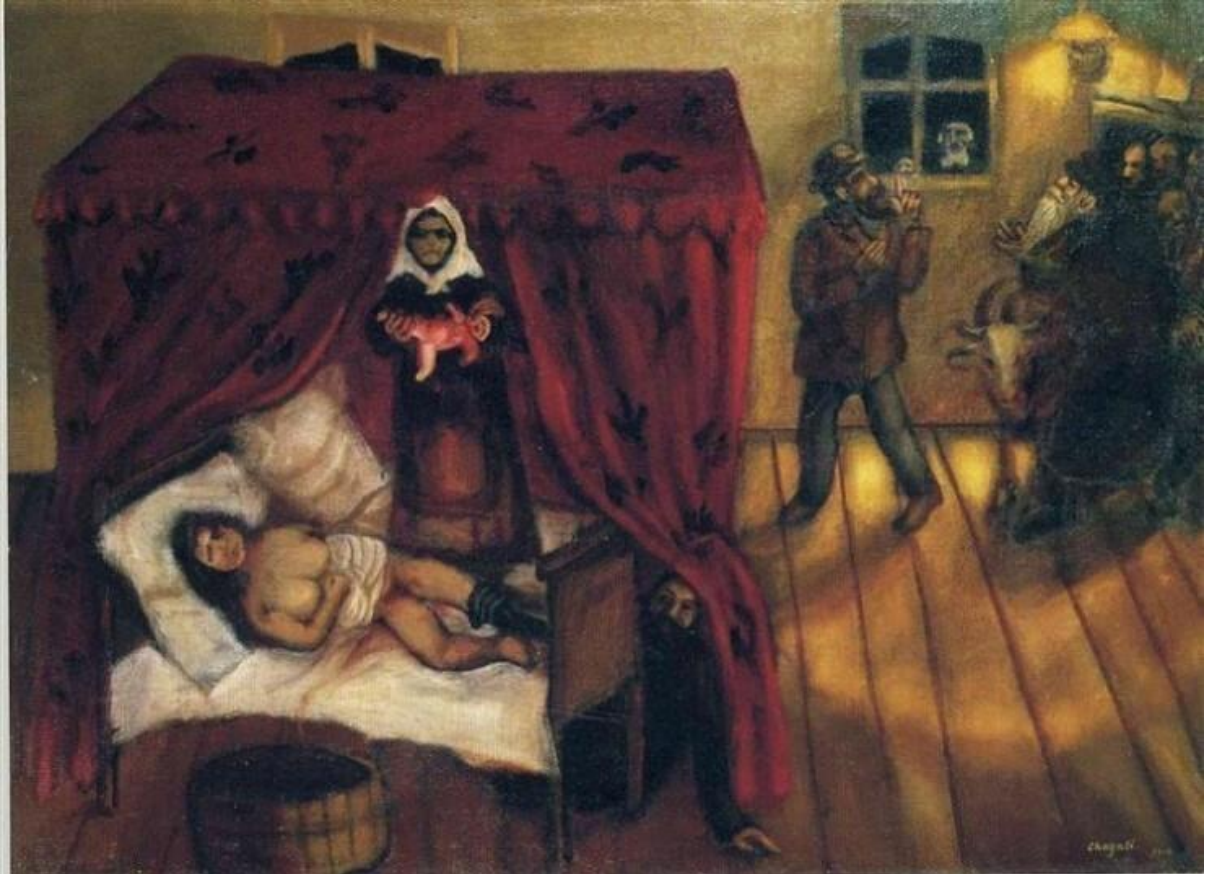
1910. Nature Morte a la Lampe



1910. Nature Morte a la Lampe



1910. Sabbat



1910. Birth. oil on canvas : 89.5 x 65 cmKunsthaus Zürich, Zürich, Switzerland

1910년 여섯 작품으로 본 샤갈은 유대교 하시디즘과 가족 그리고 양데팡당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띄 만한 작품은 자신의 누이를 모델로 한 Aniuta 이다. 아버지 샤갈이 내동댕이친 27 루블을 식탁 아래에서 줍고 시작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샤갈이 선택한 화가의 길을 가족 모두 응원하고 있다는 방증 같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907년 마리아스카( <https://brunch.co.kr/@hfeel/990> )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샤갈을 응원하고 격려하게 된 계기로 잘 알려진 작품이다.

이렇게 가족의 힘은 샤갈이 양데팡당 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용기의 원천이었고, 그 결과 또한 흡족했다. 비테프스크 - 상트페테르부르크 - 파리로 이어지는 샤갈의 그림 여정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샤갈 작품에는 입체파 또는 야수파 흔적은 없었고(이 여섯

작품만 봐서는 말이다) 벨라도 없다. 해서 이 시기 샤갈 작품은 한편으로 1911년부터 등장하는 작품과 경계를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11년 L'Atelier 작품에서는 앞서 말한 입체파 야수파 영향은 물론 벨라라는 인물이 샤갈의 작품에 본격적인 뮤즈로 등장하는 계기로 삼을만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간에 1910년 샤갈은 기분 좋은 한 해였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승 Bakst의 가르침이었던 유대인 이미지를 작품 오브제로 승화시키는 기염을 토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샤갈은 답답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꿈틀 거리는 에너지가 정작 이처럼 표현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갈은 그 꿈틀거리는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대인이란 삶의 과제를 어떻게든 자신만의 화풍으로 일궈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을 말이다. 신에게서까지 버림받고 싶지 않은 젊은 샤갈의 그 심경의 폭발, 1911년 작품부터 시작한다.



##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2. 7. 월.



1910-1911, 캔버스에 유채, 60.4 cm, 73 cm, 국립 현대 미술관 - 산업 창조 센터, 조르주 폼피두 센터, 마크 샤갈 국립 박물관에 기탁. 사진 © RMN-GP / Gérard Blot © ADAGP, 파리, 2020.

Marc Chagall, L'Atelier, 1910-1911, huile sur toile, 60,4 cm, 73 cm,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 Centre de Création industrielle, Centre Georges Pompidou, en dépôt au musée national Marc Chagall. Photo © RMN-GP / Gérard Blot © ADAGP, Paris, 2020.

1910년 샤갈 작품을 수집하고 있었다. 한 점 한 점 살펴보는 일이 마치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찾는 듯했다. 더더군다나 작품 연도가 게시자마다 다르면 대략 난감한 일이다. 한데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블로거가 있었다. 러시아 한적한 시골 풍경을 자아내는 곳에서 사시는 분 같았다. 유전을 발견했다면 필시 이런 기분일 것이라며 환호했다. 작품 연도는 물론이거니와 소장 위치까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s://public.fotki.com/Vakin/aa7ae/1850-1950-/2-/1910-marc-chagall.html#media>

아틀리에 L'Atelier 이 작품은 단번에 눈에 띄었다. 고흐 작품 The Bedroom\*1889)를 연상케 한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가 보인다. 하나는 표현주의 화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 칼라를 전체 배경으로 삼고, 옐로를 화면 중앙에 위치해 돋보인다. 오렌지색을 포인트 삼아 녹녹하지 않은 느낌을 연출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화면 중앙 벽에 걸린 작품 때문이다. 1909년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 즉, 벨라 자화상이 사실 이 아틀리에 중요한 미장센이었다.

샤갈과 벨라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벨라는 비테프스크 샤갈 화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샤갈은 그런 벨라의 모든 것을 캔버스에 담았다. 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샤갈은 벨라의 누드화를 그렸다고는 하지만 그 작품은 좀처럼 찾을 길이 없다. 1909년과 1910년 사이 샤갈이 그렸다는 벨라의 누드 그림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이 작품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안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하면 이렇다.

앞서 소개한 러시아 블로거분 사이트에는 이 작품이 1910년으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의심하지 않았고,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는 musee national d'art moderne 를 찾아 방문했더니, 이곳이 소장하고 있는 샤갈 작품은 9점이었고 그중 L'Atelier 이 작품은 없었다.

▶MAM: <http://www.mam.paris.fr/fr/collections-en-ligne#/artworks?filters=query%3ACHAGALL&page=1&layout=grid&sort=by author>

이런 경우는 다반사이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찾으면 된다. 새로 방문한 이 MAM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탐험 중 이곳 정체성을 알았다. 예술 후원가 그룹이었다.

[ 당신은 파리지앵이고 예술을 보고 파리와 그 주변의 비하인드 문화를 발견하는 데 호기심이 있습니까? 현대 및 현대 미술을 좋아하고 전시 큐레이터의 귀중한 설명과 함께 수도에서 가장 큰 전시회를 둘러보고 워크샵에서 예술가를 만나고 수집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주말에 탈출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현대 미술을 감상하고 싶다면 열정적인 여행자 그룹에 가입하세요! (구글 프랑스어 번역본) ]

이 MAM 에서 L'Atelier 작품이 파리 국립 현대 미술관 풍피두 센터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풍피두 센터는 이 작품이 1911 년 작품으로 소개했다. 한데 현재 이 작품은 마크 샤갈 니스 국립 미술관에 있다. 2003 년 6 월 23 일 부로 풍피두 센터가 니스 미술관에 기탁 했다는 것이다.

▶풍피두 센터: <https://www.centrepompidou.fr/fr/recherche?terms=chagall>

En dépôt Musée national Marc Chagall (Nice) depuis le 23-06-2003

▶니스 미술관 <https://musees-nationaux-alpesmaritimes.fr/chagall/collection/objet/latelier>

마크 샤갈 니스 미술관은 1910년 샤갈이 그린 그림이지만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1911년은 아닐 것이라며 이 작품을 1910 - 1911로 소개하고 있다. 숭한 미술 작품을 보며 이런 일은 흔히 겪는 일 중 하나다. 해서 풍피두 센터 고증을 따르기로 했다.

잠시 샛길일 텐데 이곳 풍피두 센터는 얼마 전 타계한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작품이라고 한다. 더 현대 리모델링 디자인을 한 분이라고 한다( <https://blog.naver.com/ksjnn/222624076472> ).

이 작품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게 다가 아니다. 마지막이 남았다. 예술을 사랑하는 파리답고 국립 현대 미술관 긍지를 높이는 홍보이고 작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이 사이트, 풍피두 센터 소장 작품 모두를 사진으로 만들어 홍보와 배포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간혹 작품 정보에 RMN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다.

▶RMN: <https://www.photo.rmn.fr/Agence/Presentation>

[ 1946년부터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et du Grand Palais(문화부 감독 하에 있는 공공 산업 및 상업 시설)의 사진 에이전시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홍보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구글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샤갈의 스케치와 그림, 샤갈의 일상 사진 등 2,384 점을 RMN에서 맘껏 감상할 수 있다. 햇볕 잘 들고 제법 커피 맛이 샤갈다운 카페에서 한 점 한 점 그림을 보면 반나절은 금방일 듯싶다. 어쩌면 마치 파리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을 자아낼 수 있을 것도 같다.

샤갈이 이 작품 정면에 벨라 그림을 놓은 것은 사실 아틀리에를 보여 주려는 의도 보다 나 애인이 생겼어! 난 사랑에 빠졌어! 내 아내 벨라를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짐작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유년 시절 샤갈은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샤갈에게 그림은 또렷하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 Epilog



1924~25c. The VISION.

2022년 2월, 공교롭게 숫자 2를 네 번 쓸 행운이 깃든 달 작가님께서 어떤 추억이 만드셨나요. 저는 어땠느냐고요? 글썄요, 딱히 꼬집을 만한 추억할 만한 일 없는 평범한 날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평범한 날도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추억 본래 돌이켜 생각할 만한 것이라고 따져 묻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2월은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전략 업무를 시작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뎠고 그로부터 근 20여 년을 전략~ 전략~ 하며 산 것 같습니다. 한데 자랑할 만한 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속 시원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무엇 하나 내 세울 것 만들지 못하고 그 세월을 보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저와 전략을 주제로 인연 맺어 준 분 모두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니 이 글을 쓰고 있지 뭘니까! 전략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매번 새롭습니다. 신박한 논리로 무장한 글과 악전고투 끝에 전략적 승리를 얻은 모험담 같은 생생한 이야기가 천일야화 급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얻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다면 요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에 대한 경영사적 배경과 의미를 되짚었더니 그동안 그렇게 뚫고 나가고 싶은 리더십에 대한 제 나름의 실마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날 샤갈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VISION이라는 한 마디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그 신비로운 경험을 표현한 이 작품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갈에게 VISION을 남긴 천사에게 얻은 영험함 때문이었는지 샤갈의 재능은 1911년 그 잠재력을 터트리고 세상은 샤갈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야수파로부터 얻은 컬러 판타지는 입체파에서 얻은 영감과 절묘하게 만나 오직 샤갈만이 수 놓을 수 있는 캔버스 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 작품보다 1911년 작품 감상은 공들이려고 합니다. 샤갈이 제게 신선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줍니다. 작가 님 모두에게도 신묘한 행

운이 가득한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H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